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강원도교육청



강원진학지원센터

한눈에 보는 단계별 면접 준비 방법

● 책의 해당 범위

I.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5. 단계별 면접 준비 방법

●1단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인하기

면접고사를 치러야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찾아 해당 대학의 면접고사 방법, 시간, 평가요소 및 배점을 미리 확인하자!

☞ 해당 파트에 수록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검색 방법 참고

●2단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 확인하기

대학에서 공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에는 해당 대학의 전년도 면접고사 문항(문제) 뿐만 아니라 출제 의도, 문항 분석 및 해설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확인토록 하자!

☞ 해당 파트에 수록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 검색 방법 참고

●3단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항목별 핵심 사례 추출하여 질문 만들기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며 항목별로 예상 면접 질문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해당 파트에 수록된 <<추출 질문 예시>>를 참고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4단계 자기소개서에서 항목별 핵심 사례 추출하여 질문 만들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보며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예상 면접 질문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해당 파트에 수록된 <<추출 질문 예시>>를 참고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5단계 모의면접으로 실력 키우기

모의면접 준비 및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모의면접을 실시하도록 하자. 면접관 역할을 하는 학생은 해당 파트에 수록된 '모의면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모의면접이 끝난 후 피드백에 활용하도록 하자.

<<모의면접 준비 및 진행 순서>>

1. 모의면접 스터디팀 꾸리기
2. 모의면접 시 물어볼 질문 정해두기
3. 모의면접 영상 촬영 준비하기
4. 모의면접 실시(면접관은 2~3명으로 구성)
인사 → 간단한 자기소개 → 학교생활기록부 추출 질문(3~4가지) → 자기소개서 추출 질문(2~3가지) → 최근 이슈 관련 질문(1가지) → 마무리 질문(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퇴장 인사
※ 모의면접 시 면접관 역할을 하는 학생은 체크리스트 작성
5. 작성한 체크리스트와 촬영 영상 함께 보며 피드백 나누기
6. 단점을 수정하여 모의면접 다시 실시하기

※ 책의 중간중간에 수록된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에는 선생님들의 면접 관련 실전 팁이 공개되어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잘 숙지하도록 하자!

CONTENTS

I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1. 면접의 실시 목적과 특징 • 01
2. 면접의 종류 • 01
3. 서류 기반 면접 준비 전략 • 02
4. 면접 절차 안내 • 02
5. 단계별 면접 준비 방법 • 05

II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2021년 주요 시사 이슈

1. 과학 • 27
2. 경제 • 30
3. 정치 및 사회 • 33
4. 교육 • 41
5. 문화 및 역사 • 45





I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1. 면접의 실시 목적과 특징
2. 면접의 종류
3. 서류 기반 면접 준비 전략
4. 면접 절차 안내
5. 단계별 면접 준비 방법



I.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1 면접의 실시 목적과 특징

대학은 면접을 통해 교과 성적과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과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 면접은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평가 방법이다.

수험자(지원자)에게 면접은 평가자를 직접 만나는 자리이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부족한 교과 성적과 서류 내용을 상쇄하고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입 면접은 전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업역량 또는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 기반 면접이 대부분이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험자의 인성 및 성격(긍정성, 사회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등) 등의 비인지적 영역과 논리적인 사고력과 종합적인 문제해결력, 대처 능력 등의 인지적인 영역을 동시에 평가한다.

2 면접의 종류

면접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이 지닌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제시문 활용 면접으로 크게 나뉜다. 그 밖에도 여러 명의 학생을 한 조로 묶어 하나의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거나 원인·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나 상호 협력 역량 등을 평가하는 집단 면접,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여러 면접실을 순서대로 들어가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처나 제시문 분석을 요구하는 MMI(다중미니면접) 면접이 있다. 다중미니면접(Multiple Mini Interview, MMI)은 ‘여러 개의 작은 인터뷰’라 불리며 학생들의 순발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검증하는데도 기존의 면접시험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은 서류 기반 면접 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자료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그 밖의 제시문 활용 면접, 집단 면접, MMI(다중미니면접) 면접을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학년도 제시문 면접 및 의대 MMI 면접 문항 분석’(가제)을 참고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자!

3

서류 기반 면접 준비 전략

서류 기반 면접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단순히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담겨 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관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면접에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마지막 한 마디) 등은 단골 질문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자! 외국어 관련 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엔 해당 외국어로 자기소개 정도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4

면접 절차 안내

1) 면접고사 고사장 가기 전 유의사항

- 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면접 대기실의 위치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한다.(※수험생 사정에 따라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함)
- ② 면접고사의 예비소집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니 수험생은 대기실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대학교 홈페이지의 캠퍼스맵을 활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원대학교(<https://www.kangwon.ac.kr>)의 경우엔 ‘대학소개’ 탭(tab) → ‘캠퍼스안내’ 탭 순으로 들어가면 캠퍼스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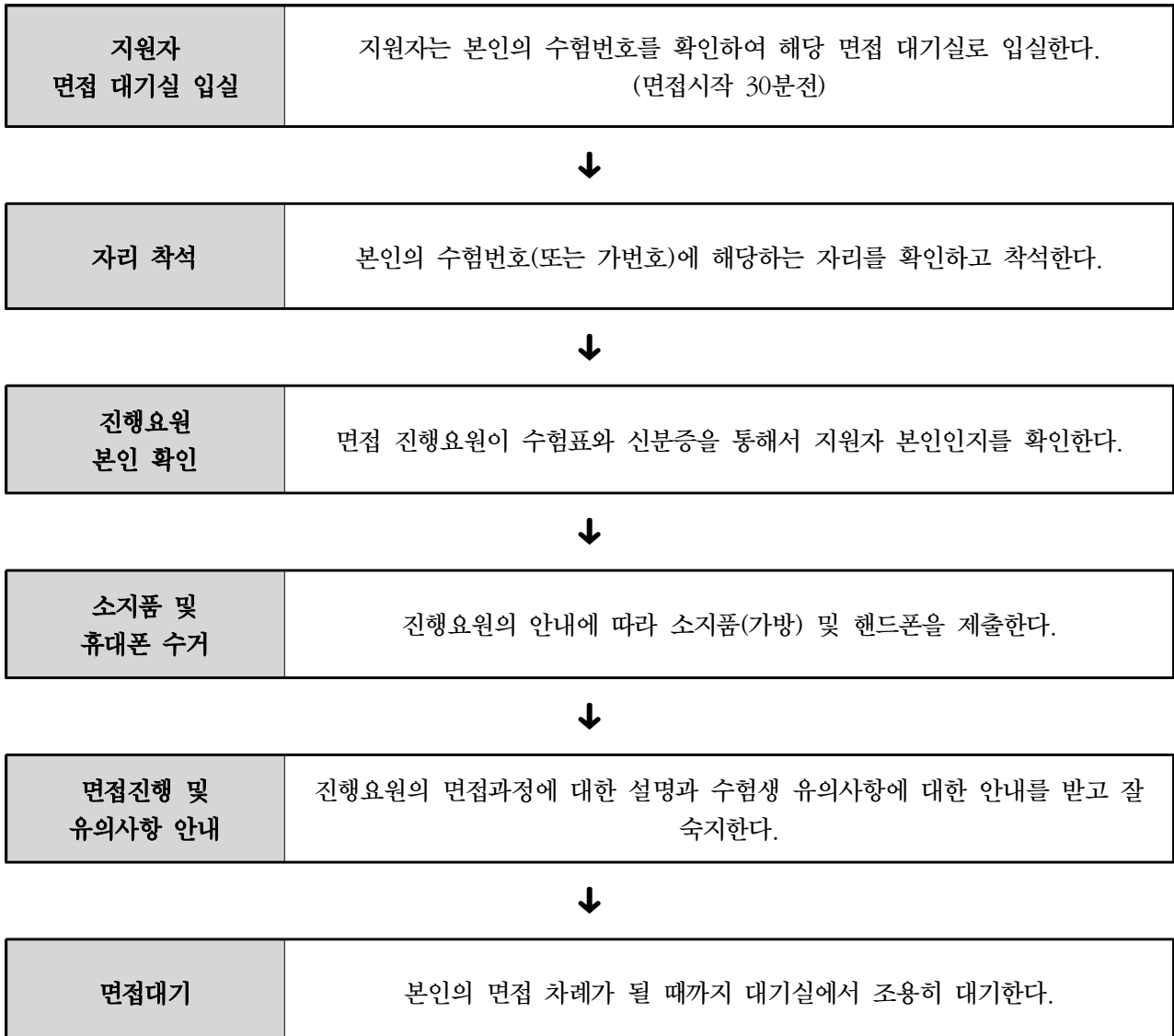
<p><그림 1-1>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대학소개’ 탭 클릭)</p>	<p><그림 1-2>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캠퍼스맵</p>

- ③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사진이 있는 학생증, 지자체발행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증 또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원서 접수한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④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되니 절대 교복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블라인드(blind) 면접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정보(고교명, 고교유형, 고교주소), 부모(친인척 포함)의 신상정보 등을 이야기하지 않는 면접 방식을 말한다. 본인의 출신 학교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을 수 없다. 면접관 역시 블라인드 적용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면접 전에 대학에서 제공한 지원자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2) 면접 대기실



3) 면접 고사실 상황

지원자 확인	“수험번호(가번호) ○○의 학생이 맞습니까?” (수험표 및 가번호 확인)
↓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면접관 소개 - 본인 및 다른 면접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 선생님입니다.”
↓	
긴장완화	“찾아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	
면접과정 설명	“오늘 면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분이며, 면접관들이 돌아가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하기	Main 질문: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역량별 질문 책임자) Probing 질문: STAR 기법에 따라 추가 질문들을 실시함 - ST: 해당 경험의 구체화 - A: 지원자의 행동 구체화 - R: 결과의 구체화
↓	
관찰하기	지원자의 답변내용에서 평가 역량과 관련된 사항들을 찾아낸다. 지원자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	
기록하기	평가역량과 관련된 답변/행동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록한다.
↓	
자유발언 기회제공	“지금까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 본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종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원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향후 일정 안내	“합격자 발표 및 일정은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나가셔서 진행 요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STAR 기법

S(situation)	Q.	그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A.	과거에 발생한 특정 상황의 맥락을 다각도로 설명
T(task)	Q.	지원자가 그 때 수행한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A.	본인이 수행한 역할 및 이유에 대해 설명
A(action)	Q.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취한 행동을 말씀해 보십시오.
	A.	문제 접근 및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R(result)	Q.	그 행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A.	결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를 통해 학습한 내용과 향후 본인에게 미친 영향 설명

* (전)한국의국어대학교 이석록 입학전형교수 교사연수자료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면접 절차를 설명하는 이유는 면접 당일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면접 당일에 있을 긴장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낯선 상황을 익숙한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모의면접을 할 때 면접 고사실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이 종료되고 고사실을 나오는 순간까지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상황을 설정하여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자! 긴장감을 잘 다스린다면 자신의 평소 실력을 면접관들 앞에서 막힘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 단계별 면접 준비 방법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면접이라는 상황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생소하며 따라서 면접 준비 방법 역시 막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라면 이런 걱정은 NO! 이번 장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셀프 면접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단계별 면접 준비 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대입 수시전형 진학지도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일러둔다.

1) 1단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인하기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면접고사 방법, 평가 요소(배점) 및 평가 내용 등을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모집 전형에 면접고사가 있다면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면접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혼동하지 않을 것)

시행계획을 보면 대학별로 대면·비대면 면접, 서류 기반·제시문 기반·심층 면접 등 면접고사 방법과 그 밖에 평가 요소 및 배점, 평가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한 대학에서 발표

한 면접고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① 면접고사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도, 기초수학능력,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리더십, 목표의식,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 인성 등을 평가한다. 공통적 평가 요소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인지적 영역 평가 요소

평가요소	평가 내용	평가 기준
기초 수학능력	•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전공 소양	• 지원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학문적 발전가능성	• 전공 선택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적 의식과 열의 • 학업 이수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수상내용과 전공과의 관계성	• 학문적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전공에 대한 준비도	• 전공 영역에 대한 이해 • 전공 선택 동기 • 진로 계획의 적절성	• 진로계획은 적절하며 지원 동기는 확고한가?
전공 적성	• 관련 분야에 대한 열정 · 전공 관련 흥미와 소질	•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과 흥미 정도는?
창의성	• 지적 호기심 • 응용력 및 적용	• 지적 호기심과 응용 및 적응력은?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	• 논리력과 논리적 사고 • 창의력과 창의적 사고 • 판단력 및 적응력	• 문제 해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전)한국의국어대학교 이석록 입학전형교수 교사연수자료

● 비인지적 영역 평가 요소

평가요소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봉사정신	• 봉사정신의 진정성, 지속성, 활동 후 행동변화, 봉사활동의 태도	• 봉사활동의 진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봉사활동 후의 행동변화는?
협동심	•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 공동모교를 위한 협동심 발휘	• 협동심은 어느 정도인가?
성실성	• 결석 사유 •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재량 활동에서의 책임감	• 성실성은 어느 정도인가?
역경극복 의지	• 가정환경과 자기 극복 의지 • 어려운 일의 극복과정	• 역경극복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도전정신	• 동아리 및 체험활동에서의 실행력(가정 환경 및 극복의지) •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 의식	• 도전정신은 어느 정도인가?

목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동기의 구체성 •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 •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 목표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에서의 자기주도적인 활동 정도 	• 자기주도성의 정도는?
갈등조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해결 노력 • 비교과 여러 활동에서의 팀워크 증진 노력 	• 갈등조정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개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활동의 영역 및 참여의 적극성 • 자치·적응·행시활동의 내용, 참여도, 성실성 	• 자기개발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역할 인식 • 효과적 관계 구축 • 실행력 	• 책임감은 있는가?
면접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에 임하는 태도의 적극성과 자신감 • 인사성과 응답의 적극성 • 바른 자세와 동작, 어투 	• 면접태도는 올바른가?

* (전)한국의국어대학교 이석록 입학전형교수 교사연수자료

②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검색 방법(ex. 강원대학교)

강원도 학생들의 지원률이 가장 많은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검색하여 면접고사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입학처 홈페이지(<https://www.kangwon.ac.kr/admission01/index.do>)에 접속하거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입학처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검색하는 경로는 아래의 그림(2-1, 2-2)을 참고하기바란다.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입학처 홈페이지 접속
(‘입학도우미’ 탭 → ‘시행계획’ 탭 순으로 접속)

강원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면접고사 관련 부분을 보면 전형별 면접 시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강원대학교 면접고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기출 문제(예시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곧이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자신이 지원한 다른 대학들도 강원대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2) 2단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 확인하기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란?

각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대학별고사, 즉 논술,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및 교직적성, 인성검사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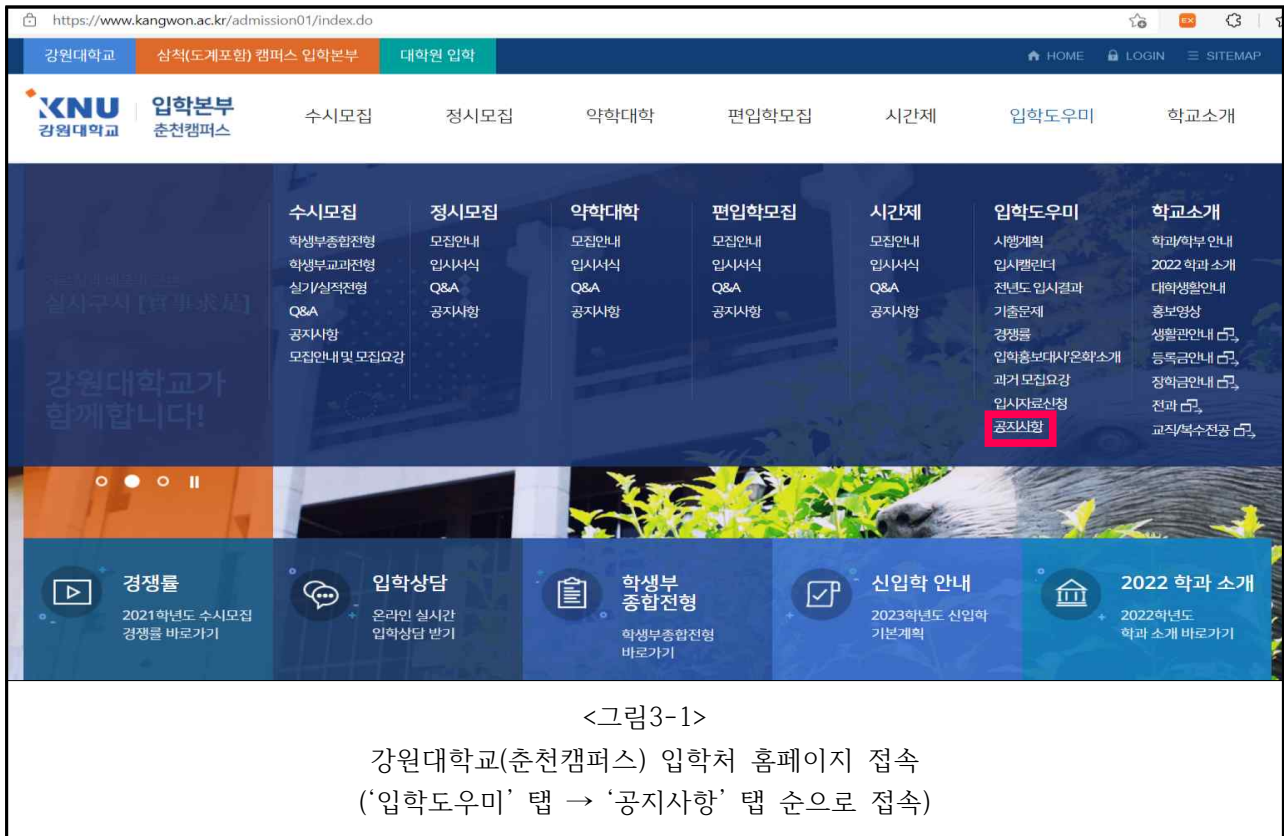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문항 총괄표, 평가 진행 절차와 방법,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를 위한 노력, 문항 분석 결과, 심의 결과와 향후 반영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문항 분석 결과에는 대학별로 내용 구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집 단위별 문항 출제 범위, 문항별 출제 의도, 교육과정 출제 근거(개념과 교육과정 출처), 자료출처(교과서, 기타), 실무위원 검토의견, 영향평가 심의사항, 문항 분석 및 해설 등이 담겨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몇 년간의 기출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주로 부록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기출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포함한 대학별고사를 준비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대학들이 공개한 대학별고사의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된 기출 문제와 함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밝힌 문항 분석 결과를 꼼꼼히 살펴 출제 의도와 경향을 파악한다면 면접고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 검색 방법(ex. 강원대학교)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검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https://www.google.com>)에 접속하여 '○○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검색명으로 입력하여 찾아보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면접고사를 응시해야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강원대학교(춘천 캠퍼스)의 경우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학도우미' 탭 → '공지사항' 탭 순으로 들어가면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강원대학교의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아래의 그림(3-1, 3-2)을 참고하여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인해보자. 다른 대학도 입학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가 탑재된 경우가 많으니 다른 대학의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그림3-1>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입학처 홈페이지 접속
(‘입학도우미’ 탭 → ‘공지사항’ 탭 순으로 접속)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657	공통	[분학기] '2021년도 저소득층 입학생 어학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	입학과	2021.06.02	451	
656	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원서접수 안내	입학과	2021.05.07	1075	
655	약대입학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시모집 약학과 관련 안내사항	입학과	2021.05.03	3104	
654	공통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입학전형 정보제공 안내	입학과	2021.05.03	1711	
653	수시	202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공고	입학과	2021.05.03	6130	
652	공통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모집인원 안내	입학과	2021.04.30	1715	
651	대학원	2021. 일반대학원 신입생을 위한 주요 학사정보 안내 (Life Guide)	대학원입시담당자	2021.04.13	1001	
650	수시	<u>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고</u>	입학과	2021.03.26	2266	
649	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정원내 전형) 모집 안내	대학원 담당자	2021.03.24	1239	
648	공통	2022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입학과	2021.03.04	4038	

<그림3-2>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고
(미줄)

④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자체보고서) 예시(ex. 강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 강원대학교

대학별고사 운영현황	면접 고사	대학별 고사	전형명	계열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학생부종합 (미래인재전형)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학업역량 인성 잠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탐구경험과 문제해결능력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대학에서의 학업 목표와 의지 공동체 의식 및 협업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도전 의식 자기주도성 자기관리능력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확인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공학							
			학생부종합 (평생학습자전형)	자연과학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사범대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교직인성	성실성 타인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결상황, 자기주도학습경험 등 학교생활 전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에서 역할과 수행 	지원자 확인			
									교직적성	교직관 학생이해 및 의사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에 관한 태도 및 가치관 전공 및 교직에 대한 학업 계획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처 방식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사범대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교직인성	성실성 타인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결상황, 자기주도학습경험 등 학교생활 전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에서 역할과 수행 	
											교직적성
			학생부교과 (재직자전형)	자연과학	지원동기 학업계획	목적의식 적성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 입학 이후 학업 계획 전공분야에 대한 미래 설계 	지원자 확인			

※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는 평가지표가 학업역량, 인성, 잠재역량, 교직인성, 교직적성, 지원동기, 학업계획으로 이는 교과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거나 지원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문항 분석 결과	<p>가.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면접고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평가기준이 학업역량, 인성, 잠재역량으로 이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p> <p>나. 학생부교과전형의 교직인적성 면접의 경우, 평가기준이 교직인성, 교직적성, 지원동기, 학업계획으로 이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지원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또한, 학생부교과전형 재직자전형 면접의 경우, 평가기준이 지원동기, 학업계획으로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지원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p> <p>다. 따라서 우리대학의 면접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대학별고사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행 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p>
----------	---

대학별고사 특징 및 선발 방법	<p>10. 대학별고사 특징 및 선발 방법</p> <p>가. 면접평가</p> <p>1)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 소프트웨어인재전형, 평생학습자전형, 특성학교졸업자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방법: 수험생 1인당 대 면접위원(입학사정관) 2인 이상 개별 면접 실시(블라인드 면접) - 면접시간: 수험생 1인당 15분 내외 - 평가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요소</th><th>구체적 평가 내용</th></tr> </thead> <tbody> <tr> <td>학업역량 (50%)</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졌던 문제나 과제에 대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취에 나아가는 능력 (학습 탐구 경험과 문제해결능력,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대학에서의 학업 목표와 의지) </td></tr> <tr> <td>인성 (30%)</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과 끈기를 다하여 충실하게 수행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및 협업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td></tr> <tr> <td>잠재역량 (20%)</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탐색, 학습, 활동 과정에서 몰입 또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능력 (도전 의식, 자기주도성, 자기관리능력) </td></tr> </tbody> </table> <p>2)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사범대학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방법: 수험생 1인 대 면접위원 3인 개별 구술 면접(블라인드 면접) - 면접시간: 수험생 1인당 10분 내외 - 평가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항목</th><th>평가 요소</th><th>점수 배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교직인성</td><td>성실성</td><td>30</td><td rowspan="4">별도의 교과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td></tr> <tr> <td>타인배려</td><td>30</td></tr> <tr> <td rowspan="2">교직적성</td><td>교직관</td><td>60</td></tr> <tr> <td>학생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td><td>60</td></tr> <tr> <td colspan="2">기본점수</td><td>120</td><td></td></tr> <tr> <td colspan="2">합 계</td><td>300</td><td></td></tr> </tbody> </table>	평가 요소	구체적 평가 내용	학업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졌던 문제나 과제에 대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취에 나아가는 능력 (학습 탐구 경험과 문제해결능력,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대학에서의 학업 목표와 의지) 	인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과 끈기를 다하여 충실하게 수행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및 협업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잠재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탐색, 학습, 활동 과정에서 몰입 또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능력 (도전 의식, 자기주도성, 자기관리능력)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배점	비고	교직인성	성실성	30	별도의 교과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	타인배려	30	교직적성	교직관	60	학생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60	기본점수		120		합 계		300	
	평가 요소	구체적 평가 내용																														
	학업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졌던 문제나 과제에 대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취에 나아가는 능력 (학습 탐구 경험과 문제해결능력,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대학에서의 학업 목표와 의지) 																														
	인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과 끈기를 다하여 충실하게 수행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및 협업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잠재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탐색, 학습, 활동 과정에서 몰입 또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능력 (도전 의식, 자기주도성, 자기관리능력)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배점	비고																												
	교직인성	성실성	30	별도의 교과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																												
		타인배려	30																													
	교직적성	교직관	60																													
		학생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60																													
기본점수		120																														
합 계		300																														

◎ 카톨릭관동대학교(진형별 면접고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전형요소	출제범위	질문사항
면접고사	인적성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소개와 지원동기, 학업계획 · 자기소개서 및 개별질문 시간에 맞춘 내용
	집단토론 (의학과만 해당)	<p>[예시] 각 문항별 사례에서의 문제점과 본인이 각 사례의 의사A라고 가정했을 경우 취할 행동에 대해 토론하시오</p> <p>58세 남자 환자 ○○○은 약 10년 전 만성 제창염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 환자는 간간히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아플 때마다 마약성 진통 주사를 요구하였다. ○○○ 환자의 주치의는 마약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진통 주사를 주었으나, ○○○ 환자는 진통 효과가 전혀 없으며 복통이 있을 때마다 응급실로 가서 마약성 주사를 처방 받았다.</p> <p>응급실 당직의 A는 ○○○ 환자가 응급실에 올 때마다 거의 한 시간 이상 마약성 주사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으며, 응급실 환자가 많아서 너무 바쁘거나 ○○○ 환자의 통증이 너무 심해 보일 때는 마약성 진통 주사를 주기도 하였다.</p>

- 인·적성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품성과 지원동기 등에 관한 질문 및 전공 적합성과 장래성을 종합평가하는 등 평이한 수준으로 구성.
- 집단토론의 경우 면접고사 진행 전 1시간 동안 집단토론 할 주제를 제공하고 준비하도록 하며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의료윤리에 관련한 내용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선행학습 유발요인과 관계없음

학생부종합전형

2)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	출제범위	질문사항
면접고사	인성영역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에 적은 것 중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 미인정 지각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동아리 활동에 대해 어떤 동아리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로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지 설명해주세요 · 동아리 활동의 주된 의미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봉사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기억에 남는 독서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 입학 후 어떤 대학 생활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그 외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학생부종합전형)
	전공영역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우리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준비과정을 설명해주세요. · ○○○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학과를 졸업 후 진로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 본인이 고등학교 동안 좋아했던 교과목과 이를 위한 공부 방법은? · 전공과 관련해 수행한 탐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요? · ○○탐구(또는 토론 등)에서 본인이 했던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실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극복하였고, 그 방안은 무엇이었나요? · ○○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본인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현시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나요? · 고등학교 재학시절 다양한 진로로 고민한 것 같은데 미래의 교사로서 자신과 같이 다양한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요? · ○○학과를 희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대학의 ○○학과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 및 전공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

정시

3) 정시

전형요소	출제범위	질문사항
면접고사	인·적성*	<p>(의학과)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서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p> <p>(항공운항학과) 지원동기와 우리 대학 항공운항학과 차별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p> <p>(휴먼서비스대학) 지원동기와 개인의 장점,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p>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합·불 면접을 시행함

3) 3단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항목별 핵심 사례 추출하여 질문 만들기

2021학년도 기준 고3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번 인적·학적사항은 신원확인을 위해 활용될 뿐 학생부종합전형의 직접적 평가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型的 주요 평가내용은 학생부 2번 출결상황부터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이다.

- ① 2번 출결상황: 주로 인성과 관련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출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결과 관련된 문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추출 질문 예시〉

☞ 1, 2학년 미인정 지각(1학년 2회, 2학년 3회)의 원인과 극복 노력은 무엇인가?

☞ 2학년 시기 질병결석(3일)의 원인은 무엇인가?

- ② 3번 수상경력: 수상경력에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로 모두 활용된다. 면접관 입장에서 수상 경력은 학생부 여러 항목 중 면접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상명과 등급(위), 참가대상(참가인원)만 있을 뿐 활동에 참여한 동기 및 배경, 활동의 중간 과정, 활동 후 배우고 느낀 점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할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을 받은 사실보다 노력의 과정에 대한 질문을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추출 질문 예시〉

☞ 2, 3학년 시기 다른 과목은 저조하면서도 수학 과목에 대해 경시대회(2학년 1학기 수학경시대회 3위) 및 교과우수상(2학년 2학기 미적분 I, 3학년 1학기 확률과통계)을 수상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면?

☞ 2학년 시기 자율동아리활동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수상 경력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1학기에 1개씩만 대학에 제공된다. 면접 당일 하나의 수상 기록을 두고 여러 측면에서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여러 개 추출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면접 준비 방법이다.

● 2학년 동아리경연대회(은상) 수상

- ① 어떤 대회였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 ② 본인은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으로 참가했나?
- ③ 대회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나?
- ④ 은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 ⑤ 대회에 다시 참가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 ③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④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 및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인성 및 발전가능성의 근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로 학급 임원, 학생회, 선도부, 학급 내의 직책(총무부장, 환경미화부장 등)과 관련하여 학생

의 기여도와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질문한다. 이를 고려해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3년 동안 학급 멀티미디어부장 활동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 ☞ “1학년 때 학급단합대회 부반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그때 어떤 역할을 수행했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반장과 부반장은 어떤 역할 구분이 있는가?

- ⑤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전공적합성의 판단의 근거로 많이 활용되며,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인성 측면의 평가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3년 동안 과학창의탐구토론반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인 활동은?
- ☞ 1학년 의약품 분리수거 자율동아리활동은 의료보건계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 화학, 신소재 관련 자율동아리로 변경했는가?
- ☞ 2학년 동아리에서 아두이노 실험을 했는데, 무엇을 제작했는지 본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면?

- ⑥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학생부 봉사활동은 특기사항과 봉사활동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 인성을 많이 평가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2학년 시기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다문화 멘토링을 하게 된 계기와 해당 활동으로 배운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 “1학년 53시간, 2학년 64시간, 3학년 55시간”이라고 봉사활동실적에 기록돼 있는데, 월평균 2회 정도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3학년에도 50시간 넘게 했다.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나?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본인한테 봉사는 어떤 의미인가?

- ⑦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학업역량(학업태도, 학업의지) 및 전공적합성(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과 관련하여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2학년 시기 진로활동으로 발표한 경영학 세부전공에 대해 설명하면?
- ☞ 3학년 시기 다른 교과와 경제학을 연계하여 진행한 조사 및 발표활동의 구체적 사례와 왜 그런 활동을 진행했는지 설명하면?

- ⑧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년별 학기별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이 기재되어 있다. 학년별 학기별 성적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학업역량 중 학업성취도, 전공적합성 중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와 관련해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특은 과목별로 다양한 내용이 기재 가능하기에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을 모두 평가

할 근거로 활용된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추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기에서는 세트를 바탕으로 한 질문 사례만 제시한다. 참고로 학년별 학기별 성적 중 특히 전공 관련 과목과 관련된 질문을 묻는 경우가 많다.

〈〈추출 질문 예시〉〉

- ☞ 2학년 때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에 대해 조사한 활동을 하였는데 주제선정 이유와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
- ☞ 3학년 화학실험에서 진행한 산패 및 산화방지를 위한 식품첨가물 대체 물질 연구의 동기 및 배경, 연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 2학년 기하와벡터 과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모양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 3학년 사회문제탐구 수업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스크랩 활동을 진행하며 알게 된 탈원전 정책의 찬반입장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면?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세트에 해당 교과와 관련해 전문적인 내용(이론, 법칙, 전문용어 등)이 기재된 경우 지원자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접관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자신의 세트를 잘 읽고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자신의 말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정리해두자!

- 예) • 2학년 때 산화와 환원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산화와 환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 전염병 확산 모델 중 SIR 모델에 대해 탐구했다고 하는데, 그 모델에 대해 아는 만큼 설명하면?
 - 수업시간에 탐구활동 보고서 수행평가로 입실론-델타를 이용하여 극한의 개념을 증명했다고 하는데, 간단한 개념설명과 증명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

⑨ 9번 독서활동상황 : 수상경력과 마찬가지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로 모두 활용된다. 다른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은 학교와 교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서활동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보다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서활동은 과목 독서와 공통 독서로 나뉘는데, 과목 독서의 경우 학업역량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소설, 시, 극문학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이 있는데 어떠한 작품이 자신의 진로설정에 도움이 되었나?
- ☞ 2학년 독서활동 중 ‘통계의 거짓말’을 읽으며 인상깊었던 내용들을 일상생활 속 사례를 들어 소개하면?
- ☞ 3학년 독서활동 중 ‘자본주의’의 독서 동기 및 배경과 책을 읽은 후의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설명하면?

⑩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021학년도 기준 재학생의 1, 2학년의 내용이 평가의 근거가 된다. 학생부 수상경력, 독서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로 모두 활용된다. 각 학생별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됨을 고려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1학년 학생회 기획부 차장으로 진행한 소통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기사 작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설명하면?
- ☞ 2학년 학급 자율활동 시간 발표한 뇌정보학(뇌공학)과 화학과의 연관성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자신의 학생부를 토대로 직접 면접 질문을 추출할 차례다.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본다면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래 양식은 강원진학지원센터(<https://jinhak.gwe.go.kr>)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있으니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대입전략’ 탭 → ‘면접/대학별고사’ 탭 순으로 접속).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면접 질문 추출하기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中 -

◎ 지원대학 및 학과(학부):

◎ 지원대학 또는 지원학과(학부)의 인재상:

※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읽고 2번(출결상황)부터 8번(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의 각 항목(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제외)에서 의미 있는 사례(핵심 사례)를 뽑고 이와 관련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보세요!

2번 출결상황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3번 수상경력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5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6번 교과학습발달상황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3	•
	추출 질문	• •
7번 독서활동상황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4) 4단계 자기소개서에서 항목별 핵심 사례 추출하여 질문 만들기

2021학년도 기준 고3의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는 2개의 공통 문항과 1개의 자율 문항으로 구성된다. 일부 대학은 자율 문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소서는 제한된 분량으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면접에서는 학생부와 자소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 진위를 검증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개의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면접 질문을 추출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① 1번 진로와 관련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기존의 자소서 1번과 2번 문항이 통합된 문항으로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학습 경험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자소서에 적고, 면접에서 답변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제학과를 지원한 학생은 수학과 사회 과목 학습에 대해, 화학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은 수학과 화학 과목 학습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교내 활동의 경우 전공과 관련해 자신이 노력한 활동의 배경과 동기, 구체적인 과정, 활동 후 배우고 느낀 점과 그 후속 활동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녹차, 레몬, 크랜베리에서 각각 카테킨, 구연산, 안토시아닌을 추출하여 항균실험을 진행한 결과 구연산이 가장 항균효과가 높은 결과를 얻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 ☞ 영어 교과목 성적 향상을 위하여 물리와 공학분야의 주제를 연관지어 발표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원의 넓이 구하기 비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를 하였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② 2번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기존의 자소서 3번 문항(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에 비해 좀 더 넓은 의미의 문항으로 변경된 만큼, 인성 및 발전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 이 문항 역시 학생의 경험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활동을 통한 성장의 면모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 질문 예시〉〉

- ☞ 학생의 날 캠페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하면?
- ☞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자신의 자소서를 토대로 직접 면접 질문을 추출할 차례다. 학생부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본다면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래 양식은 강원진학지원센터(<https://jinhak.gwe.go.kr>)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있으니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대입전략’ 탭 → ‘면접/대학별고사’ 탭 순으로 접속).

자기소개서 관련 면접 질문 추출하기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中 -

◎ 지원대학 및 학과(학부):

◎ 지원대학 또는 지원학과(학부)의 인재상:

※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잘 읽고 1번(진로와 관련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과 2번(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각 항목에서 의미 있는 사례(핵심 사례)를 뽑고 이와 관련하여 면접 질문을 추출해보세요!

1번 문항 진로와 관련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활동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2번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핵심 사례1	•
	추출 질문	• •
	핵심 사례2	•
	추출 질문	• •

5) 5단계 모의면접으로 실력 키우기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추출한 질문들을 토대로 모의면접을 해볼 차례다. 여기서 말하는 모의 면접은 면접관의 역할을 대신 해줄 교사가 부재하였을 때 친구들과 면접을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모의면접의 준비 및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모의면접 준비 및 진행 순서〉

5. 모의면접 스터디팀 꾸리기

6. 모의면접 시 물어볼 질문 정해두기

7. 모의면접 영상 촬영 준비하기

8. 모의면접 실시(면접관은 2~3명으로 구성)

인사 → 간단한 자기소개 → 학교생활기록부 추출 질문(3~4가지) → 자기소개서 추출 질문(2~3가지) → 최근 이슈 관련 질문(1가지) → 마무리 질문(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퇴장 인사

※ 모의면접 시 면접관 역할을 하는 학생은 체크리스트 작성

5. 작성한 체크리스트와 촬영 영상 함께 보며 피드백 나누기

6. 단점을 수정하여 모의면접 다시 실시하기

모의면접 준비와 진행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잘 읽고 유념하도록 하자.

① 모의면접 영상 촬영 및 다시 살펴보기

모의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다.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의면접 영상을 다시 보면 부끄럽다고 영상을 촬영하지 않거나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모의면접이 끝난 후에 해당 영상을 다시 보면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말투로 면접에 임하고 있는지 자신이 직접 보지 않으면 면접에 대하는 태도와 말투, 표정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영상을 보면 쉽게, 단번에 고쳐지는 단점이 많으니 반드시 면접 영상을 보고 고쳐야 한다.

② 면접 준비를 위한 노트

면접 준비를 위해 질문과 답변 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항상 들고 다니며 그때 그때 모의면접마다 추가할 점, 유의할 점 등을 메모해놓고 계속 살펴봐야 한다.

③ 모의면접을 위한 스터디팀 구성

말 그대로 친구들과 모의면접을 위한 스터디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동일한 또는 비슷한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스터디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스터디팀을 구성할 때 보통은 친한 친구들끼리 스터디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칫 분위기가 가벼워서 진지한 피드백을 주고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 어색한 사이의 친구들과 스터디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서 준비하려면 멧쩍고 잘 준비가 안 되는 것도 3~4명 정도의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만나거나 온라인 상으로 모의면접을 준비한다면 훨씬 면접 준비가 잘 된다.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모의면접은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많이 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모의면접 횟수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 모의면접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다음 모의면접 때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모의면접 동안 다소 매끄럽지 못하거나 황설수설한 답변이 있었다면 해당 답변을 혼자서 반복해서 말해보며 내용을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면접 대비 TIP!!!

면접 답변에 관한 TIP - 두괄식 답변

두괄식 답변이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의 요점 내지는 전체 요약 내용을 한 문장으로 먼저 대답하고, 그에 대한 이유 및 근거를 풀어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 먼저 나와야 이 문장을 통해 앞으로 듣게 될 내용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도 그 윤곽 안에서 정리되므로 이해하기 수월해진다. 모의면접 시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도록 하자!

예시)

Q.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

A. <두괄식 답변 적용 전> 저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평소 사회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2학년 때 사회토론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탐구활동으로 사회토론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탐구활동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정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 그에 대한 대책 방안, 관련된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중략)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저의 진로 분야인 복지 분야 중 노인

관련 복지 분야에 대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A. <두괄식 답변 적용 후>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2학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 대책’이라는 탐구보고서를 작성한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분야에 대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략) 이러한 부분이 저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 내어 주었습니다.

아래는 모의면접 시 면접관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작성할 체크리스트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강원진학지원센터(<https://jinhak.gwe.go.kr>)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있으니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대입전략’ 탭 → ‘면접/대학별고사’ 탭 순으로 접속).

모의면접 체크리스트

체크할 사항	예	아니오
1. 면접실에 들어갈 때 큰 소리로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는가?		
2. 자리에 앉기 전에 다시 한 번 인사를 했는가?		
3. 목소리가 면접관에게 잘 들릴 정도로 컸는가?		
4. 면접 질문에 대한 대답 상세 체크 문항		
4-1. 면접의 어떤 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못하였는가?		
-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		
- 독서활동과 관련된 질문		
- 세특과 관련된 질문		
- 그 외 생기부와 관련된 질문		
- 전공과 관련된 질문		
- 시사 문제와 관련된 질문		
- 기타		
4-2. 면접 중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 말하는 태도가 예의바르지 못하였다.		
- 말이 중언부언하고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 ‘하십시오’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대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였다.		
- 너무 답변이 짧거나 길어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적절한 시간은 3분)		
-기타		
5. 준비하지 않은 질문에 임기응변으로 잘 답변할 수 있었는가?		
6. 면접관의 질문에 요점 위주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었는가?		
7. 자신감 있게 답변하였는가?		
8. 면접이 끝난 후 예의바르게 인사하고 퇴장하였는가?		

6) 면접 시 긴장 해소 방법

면접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적은 긴장이다. 발표할 때 열심히 준비한 내용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 두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더욱이 면접고사와 같은 큰 시험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전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긴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면접고사에 있어서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긴장을 최대한 해소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면접고사장에 가게 되면 순번에 따라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된다. 이때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방법들이 긴장을 100%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력을 강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① 심호흡 하기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흡이 짧고 얕아지게 되면서 뇌에 산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 이럴 땐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이나 가슴 깊은 곳까지 느껴지는 횡격막 호흡을 하게 되면 긴장이 완화되고 호흡이 안정될 수 있다.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뿜기를 10초 정도 반복을 하는 깊은 호흡을 하고 이때는 되도록 눈을 감고 혹은 하늘이나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② 초콜릿 먹기

한 연구의 논문에 따르면 다크초콜릿이 포함된 초코바를 2주에 1개꼴로 먹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한다. 초콜릿에 포함된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감 상태를 유지하는 뇌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일부가 감소가 되기도 하므로 초콜릿을 녹여 먹는 것보다는 씹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카페인 성분 때문에 초콜릿 먹기가 꺼려진다면 사탕 등을 대신 먹어도 긴장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따뜻한 차 마시기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면서 잠시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긴장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차를 마실 때는 커피보다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추천한다. 녹차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L-테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뇌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면서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한다. 캐모마일 차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면서 동시에 불안감도 완화해준다. 대신 중요한 순간 직전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화장실 생각이 더 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좋은 향기 맡기

긴장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유난히 후각이 예민해진다. 이럴 땐 평소 익숙한 향이나 좋아하는 향을 맡아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 낯선 향을 맡았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좋아하는 향이라는 인식이 있는 향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이럴 땐 자극적인 향보다는 은은하게 풍기는 향을 간접적으로 맡는 것이 좋다. 특별히 떠오르는 향이 없다면 오렌지와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맡으면 주위 환기도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⑤ 자기 암시하기

내가 평소에 익숙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에는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긴장을 하는 이유는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뇌에 암시하게 되면, 뇌는 그것을 마치 현실인 것으로 인지하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긴장감이 느껴질 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

법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주문처럼 반복하면 우리 뇌는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자기 암시를 할 때에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며 주문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⑥ 두피 자극하기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증상 중에는 두통이 있다. 이럴 땐 관자놀이 옆쪽에 있는 태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꺾꾹 눌러 자극을 준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관자놀이의 움푹 팬 곳을 누르고 떼었다를 반복하면 뇌에 자극이 가면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머리도 맑아지면서 덩달아 눈도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아니면 손에 힘을 빼고 손목의 스냅으로만 이용해 두피를 전체적으로 두들기면서 자극을 줘도 좋고 긴장감으로 인해 차가워진 손의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 천천히 비벼줘도 좋다.

⑦ 스트레칭하기

우리 몸은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가 긴장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도 경직된다. 반대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면 긴장된 마음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온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긴장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때문에 몸을 이곳저곳 돌린다거나 크게 기지개를 펴는 등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움직임도 한결 자연스러워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감, 긴장감 등이 완화될 수 있다.

⑧ 시간적 여유 갖기

가뜩이나 긴장해서 초조하고 불안한데 여기에 시간까지 촉박하다면 마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예정된 시간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면접장에 일찍 도착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는 낯선 환경에서 자연히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면접장 주변을 둘러보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리고 차분히 면접에 필요한 내용들을 되새기고 위에서 언급한 긴장 완화 방법을 활용해 마음을 진정시켜본다.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바로 긴장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소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여 내공을 쌓는 것이다.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감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쌓여있는 실력에서 나온다. 위의 방법들을 평소에 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미리 파악해두자.

II

강원진학지원센터가 알려주는 2021년 주요 시사 이슈

1. 과학
2. 경제
3. 정치 및 사회
4. 교육
5. 문화 및 역사



1

과학

1)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개발

Q.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백신 개발은 통상 5년여 정도의 개발 및 임상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년 미만의 연구 및 시험 기간을 통해 개발된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 승인된 백신의 취약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A. 백신은 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되며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한다. 백신을 접종하여 만들어지는 항체와 기억 세포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특정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제는 이미 병원체에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되어 질환의 호전을 목적으로 한다. 백신은 그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가 따르고 제조 방법이 까다로우며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임상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유효성 위주로 상용 여부가 판단되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실행되지 못한 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예상된다.

2) DNA와 미래 과학기술

Q. 최근 생명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조작 기술이 DNA상의 특정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유전자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질을 개선하는 기술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의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제작하거나 유전자 조작 오류에 의한 신종 출현, 그리고 인간 복제 가능성 등 인간 존엄성과 가치에 반하는 생명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기술 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찬반 입장은 무엇인가?

A.

◎ 찬성 측 입장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연구가 진행 중이며 질병의 근원이 되는 유전자를 사전에 찾아 제거함으로써 아예 난치병과 같은 중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한 의료 연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 반대 측 입장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복제 인간의 출현은 인간 사회의 근간을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욱이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3) 탈(脫)원전

Q.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전 세계 곳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A.

◎ 찬성 측 입장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또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용한다면 고갈이 될 것이며 더구나 러시아 체르노빌이나 가까운 예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사고나 방사능 유출은 예상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으며 그 피해가 인류 전체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원자력 에너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 반대 측 입장

원전은 연료비가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이 높다. 또한 원자로에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원자력과 같은 친환경적 연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미세플라스틱 문제

Q. 2018년 초 폐플라스틱 배출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 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단속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A.

◎ 찬성 측 입장

일회용품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그에 비례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의 유해 물질을 쌓이게 했다. 특히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배출은 매립지의 부족을 초래하며, 소각할 경우 이 때 나오는 악취나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등은 다시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 반대 측 입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다. 카페 등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머그컵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함 때문에 선뜻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종이컵은 바로 사용하고 바로 버릴 수 있어서 시간 대비 효용성이 높다. 물론 일회용품 사용으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기는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도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규제 없이도 편리함을 높일 수 있다.

5) 메타버스

Q. 올해 과학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문제가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메타버스의 여러 유형들 중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의 예를 들면?

A. 메타버스란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 ‘메타(meta)’와 세계나 우주를 뜻하는 단어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활동 영역에까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을 일컫는다. 메타버스의 예로 요즘 게임이나 학습 보조 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증

강현실 기술이 있으며, 구글 어스처럼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가상현실을 실제 세계처럼 구현하는 거울 세계와 같은 유형들이 있다.

6)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하는 바이오매스를 물리적·화학적 변환을 통해 고체, 액체, 기체 연료나 전기 에너지, 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 긍정적 입장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공해물질을 현저하게 적게 배출하고 태양광이 있는 한 어느 곳에서나 계속 원료를 생산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하다.

● 부정적 입장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기존에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지를 에너지 작물 재배 농지로 전환하게 되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고 나아가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7) 기후변화와 전기자동차 개발

Q.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전염병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여 생태계의 평형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생물들이 인간 곁으로 이주하면서 동물들이 바이러스도 전염시켜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화석연료 위주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중에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과연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는가?

A.

● 찬성 측 입장

전기자동차는 도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므로 오염물질이 널리 퍼질 일이 없다. 현재는 전기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긴 하지만 생산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전기자동차는 환경에 거의 해를 주지 않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안의 카드뮴, 망가니즈 등이 야기시키는 환경오염은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보다 그 정도가 작으므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 반대 측 입장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 대비 발전효율이 낮아 현재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부피가 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

1) 코로나19 사태와 집에 대한 인식 변화

집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휴식·문화·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홈코노미’라고 한다. 홈(home)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이는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대부분의 여가는 물론 소비활동까지 해결하는 홈족들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실제로 집에서 각종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티포트·커피머신 등 홈카페 관련 상품, 집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트 빔, 헬스클럽에 가는 대신 간단한 기구를 통해 집안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용품 등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집에 대한 인식이 가사노동이나 잠에 대한 인식보다는 여유로움과 휴식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홈코노미 관련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집은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해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일상의 경제활동이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홈코노미와 관련된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상의 경제적 변화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2)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가 1년 연기되었고, 무관중 대회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올림픽 특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오히려 치러야 할 비용이 최대 4조엔, 한화로 41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무관중 정책으로 사라진 티켓 수익과 부가 손실을 더하면 적자가 모두 4조엔 가까이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일본 정부와 도쿄도(都),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나눠 부담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도쿄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 4519억엔으로 1인당 세금으로 계산하면 도쿄 도민 한 사람당 10만 3929엔, 한화로 108만원에 이른다.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은 도쿄올림픽이 ‘빚더미’로 막을 내리면서 현재의 올림픽 개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 수십 년간 너무 올랐다”고 전했다.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경쟁도 예전 같지 않다. 호주 브리즈번이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으나 어떤 국가가 유치를 희망했다가 탈락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2030년 겨울올림픽은 아직 개최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WP는 “이는 이제 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3주간 화려하게 열렸다 사라져 버리는 행사를 개최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해설〉〉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치러졌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만큼 개최국이었던 일본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비단 도쿄올림픽의 사례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이르러 올림픽의 위상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많은 국가에서 더이상 올림픽 개최를 국가적

숙원 사업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민심을 통합시킬 수 있는 효과는 차치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올림픽이 치러졌고 코로나로 인해 전례 없는 방식의 올림픽이었던만큼 올림픽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3) 포모 증후군과 소셜미디어

최근 코인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조바심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 지식 없이 주변 사람들을 따라 무작정 거액을 투자하는 ‘불나방 투자’는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증상을 뜻하는 ‘포모(FOMO) 증후군’은 ‘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단어이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다방면으로 확산되며 현대인을 압박하는 포모 증후군은 2004년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병리 현상의 하나로 주목했으며, 미국에서는 50%가 넘는 성인이 포모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원래 포모(FOMO)는 제품의 공급량을 줄여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매진 압박’, ‘한정 수량’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케팅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현대인에게 종종 나타나는 병리 증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모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관계 유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나 의견에 대한 타인의 평판 등에 강하게 집착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포모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다수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익히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해설>>

포모 증후군은 나만 소외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는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위의 자료에서는 포모 증후군을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포모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시사 용어인 만큼 그 의미와 분석의 관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4) 파이어족이 삶을 대하는 태도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한다. 파이어(FIRE)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50~6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0~80% 이상을 저축하는 등 극단적 절약을 선택한다. 파이어족들은 원하는 목표액을 달성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이어족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 주택 규모를 줄이고, 오래된 차를 타고,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하기도 한다.

<<해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주식 및 가상 화폐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 중 하나로 파이어족의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파이어족은 조기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란 소위 대박을 통해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극도의 절약과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자유인 것이지 묻지마식 투자를 옹호하는 용어가 아니다. 투자 광풍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투자자의 마음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파이어족이라는 용어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5) MZ세대의 투자 특징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울러 ‘MZ세대’라고 한다. 2021년 현재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으로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MZ세대가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들은 아직 자산과 소득이 적지만 과감한 레버리지(대출)로 소비와 투자에 적극적이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과 암호화폐 상승장을 주도하기도 했다.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플랫폼 업체 3~4개가 테카콘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했다. 2020년까지 MZ세대(15~40세)는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2040년에는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MZ세대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의 금융 특성은 재테크·금융서비스에 높은 관심도, 다양한 투자 방식 리드, 투자정보 취득의 다양화 등이 있다. 즉 유튜브, SNS 등으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고 전형적인 금융 상품에 얽매이지 않으며 재테크와 금융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MZ세대에 속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활동 및 금융 투자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MZ세대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및 금융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변혁이 예고된다.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 갈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는 관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

6) 선진국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과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기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못하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저소득 국가에서 아직 수억명이 첫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일부 국가가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구 중 최소 10%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적어도 9월 말까지 부스터샷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델타 변이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모든 정부의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백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적 백신 공급량 대부분을 이미 사용한 국가들이 더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인데도 부스터샷을 검토하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 1억1000만회분 이상의 백신을 기부하였으며 이것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기부한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밝히며 부스터샷 검토 국가들이 이기적이란 식으로 말한 것을 반박하였다. 미국은 백신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기부와 미국 내 부스터샷 접종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제약회사들이 예상보다 빨리 백신을 개발

하고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치적, 문화적 요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백신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함에 따라 면역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스터샷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받았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지구적 관점으로 본다면 부스터샷으로 쓰일 백신이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인류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 백신을 두고 자국의 이익과 지구적 차원의 이익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7) 탄소국경세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관세 형태를 탄소국경세라고 한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출의존도 및 주력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간접적으로는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을 인정받아 탄소국경세를 감면받을 경우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요국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설〉〉

이제 친환경은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탄소국경세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국경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친환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핵심 키워드이니만큼 친환경 패러다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3 정치 및 사회

1) 가짜뉴스 처벌, 표현의 자유

● 찬성 측 입장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포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관련 인물이나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

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명예훼손, 소수자 혐오, 정치적 편향성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 훼손 등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는 정부 차원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는 주로 인터넷, SNS를 통해 확산한다. 때문에 한번 유통된 정보를 바로잡기 매우 어렵다. 만약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신뢰할 수 없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가 타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는 근거로 가짜뉴스 제작과 유통을 방지한다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가짜뉴스 단속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반대 측 입장

허위사실 유포로 사기나 명예훼손, 정치적 악용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마땅하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공공의 선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개인의 생각, 발언, 창작물을 감시하고 처벌할 권리가 정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개인의 발언 혹은 플랫폼에 올라간 모든 콘텐츠가 정부의 감시 아래 있으며 정부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는 힘을 잃고 개인은 정부의 검열을 내재화해 자신을 검열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의 눈에 올바른 방향으로 스스로를 검열하는 개인들이 살아남는 사회로 전락하는 것이다. 정부 개입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지난 총선 당시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명목하에 삭제된 1만 7000여건의 글 가운데 가짜뉴스가 아닌 정치적 풍자나 의혹도 섞여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짜뉴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의 몫이다. 정부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정보의 사실관계를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처벌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해서는 안 된다.

2) 소년법 폐지

● 찬성 측 입장

최근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늘고 있다. 중학생 성폭행 사건, 집단폭행 사건, 살인사건처럼 강력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소년범죄는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이다. 가해자들은 SNS에서 성폭행 및 살인을 공모했으며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유심을 바꾸는 등 처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보면 소년범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중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나이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가벼운 처벌만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범행하는 것이다. 검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 강화 대책을 보면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전체 범죄소년 중 폭력범의 비중이 30.4%에서 32.3%로 늘었다. 학교폭력 성범죄 가해자는 작년 750명에서 올해 1124명으로 늘어 49.9%라는 충격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재범 문제 역시 심각하다. 소년범의 재범률은 34%이다. 절도와 같은 경범죄 재범률은 줄었지만 폭력 및 지능범죄 재범률이 늘었으며 특히 강도 재범률은 6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한다.

● 반대 측 입장

소년법을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7년 말 소년법을 개정했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고 소년법 적용 연령도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그 효과는 미미했다. 엄격한 처벌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이다.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을 보면 폭력 및 지능범죄는 증가했지만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8.9% 감소해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중 60% 이상을 차지했던 폭력 사안은 11.1% 감소하여 큰 하락세를 보였다. 2014년 41%를 넘겼던 소년범죄 재범률 역시 2016년부터 34% 이하로 유지되는 중이다. 범행 후 구속된 소년범 비율은 전년 대비 32.2%로 증가하여 적절한 처벌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년범으로 인한 교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전국 소년원은 수용 가능 인원보다 120~160% 정도 많은 인원을 감독하고 있어 사회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 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열악한 사회 제도를 개편해서 소년범의 교화를 돕는 게 우선돼야 한다. 범죄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이라도 교화하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소년법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

3) K-POP을 필두로 한 한류의 문제점과 보완점 제시

K-POP과 한류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한국을 알리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돌 중심 음악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음악 시장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돌 그룹 편중 현상과 함께 다양한 음악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K-POP의 인기가 지속되며 해외 거대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고 해외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는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거대 자본을 무기 삼아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하는 해외 기업에 한류 시장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류를 통해 벌어들인 자본을 한류의 확장을 위한 아이돌 산업에 재투자하기보다,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국내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가에게 투자하는 등 국내 음악 시장을 다양화하고 해외자본의 지나친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한류의 발전적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패스트트랙

● 개요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와 의결의 요건이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 제정 이유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의 《국회법》에서는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유보된 상태가 되어, 법안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로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부른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 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 1/3의 과반수 서명이나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원회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법안의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5)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개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말하며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199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었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논란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2020년 12월 10일에는 공수처장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 설치 배경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특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하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한시적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검찰 상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검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공수처는 특검이 맡았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을 독점함으로써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으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한편, 검찰 권력 견제 측면에서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 특성

가) 독립성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되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 소속의 특수검사(특별검사) 역시 특별검사제도처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되 추가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나) 수사대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발의 법안에 따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방계혈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다) 권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6) 층간소음은 부실공사 탓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수준이다. 이웃 간의 다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집콕댄스' 사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집안에서 한 가족이 흥겹게 춤을 추는 영상인데 층간소음을 조장한다는 비난으로 연결되면서 급기야 관련 부처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보건복지부가 사려 없이 가벼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우습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장면을 굳이 층간소음과 연결시키는 것도 이해가 쉽지 않다. 춤을 추는 곳이 굳이 아파트라는 근거도 없지만 영상을 본다고 실제로 그 춤을 따라 출 가족도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같은 비난이 일어난 것은 층간소음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층간소음은 정확하게는 소음이라기보다는 '진동'에 가깝다. 아파트 벽체 구조의 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람을 상자에 넣고 밖에서 두들길 때 안에서 느끼는 불쾌감과 같은 것이다. '건물 진동 불쾌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몇 개 층 떨어진 곳의 진동이 전해져 불쾌감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때로 엉뚱한 이웃과 싸움이 붙기도 한다. 그러면 이런 진동은 왜 요새 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우리가 전에 없던 고층 건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아파트는 대부분 30층 이상이다. 10층만 되어도 까마득한 고층으로 생각하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50층 이상도 흔하다. 아파트 형태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긴 복도를 따라 여러 세대들이 줄을 지어 붙어있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복도는 사라지고 승강기를 따라 한 층에 두서너 세대만이 살고 있다. 예전에 비해 층높이는 높아지고 바닥은 좁아진 것이다. 같은 면적에 예

전보다 대략 5배나 많은 세대들이 아래위로 놓인 형국이다.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진동이 집중되는 셈이니 문제가 심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건축구조의 발달이다. 예전의 저층아파트가 일종의 단단하고 묵직한 덩어리와 같은 구조라고 한다면, 오늘날 고층아파트는 날씬하고 가벼운 막대기와 같은 구조이다. 얇고 가볍지만 버티기는 더 잘 버틴다. 외부로부터 충격이 와도 이를 받아넘기면서 지나가기 때문이다. 지진 당시에도 고층 아파트들은 몹시 흔들렸었다. 하지만 부러지거나 넘어진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오히려 5층의 저층아파트가 쓰러진 경우는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은 아파트의 바닥이다. 예전 아파트의 바닥은 40센티미터가 넘는 두께로 지어졌지만 요새 아파트는 20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절반의 두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닥이 얇아지면 재료는 줄어들고 층높이는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이다. 하지만 가볍고 얇아지다 보면 진동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층간소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층간소음은 흔히 말하듯 ‘재료 빼먹기’나 부실 공사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건축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 것이다. 그러면 층간소음의 해결은 가능한 것일까? 물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많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둥구조’ 아파트 건설이다. 상자와 같아서 진동에 취약한 지금의 ‘벽식구조’ 아파트의 대안이다. 진동을 흡수하는 마감재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층아파트 양식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 이러한 부수적인 방안들이 만족할 만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다. 효과가 좀 있다 하더라도 시공비가 올라가고 세대수는 줄어들게 만든다. 지금도 하늘을 뚫을 기세인 아파트 가격을 더 자극할까 두렵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층간소음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주거문화, 주거양식의 필연적인 단점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한국형 고층아파트 양식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어두운 일면이라는 것이다. 사랑해서 스스로 선택한 대상이라면 그 단점도 품어야 한다고들 한다. 이걸 사람 뿐 아니라 주택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세상에 완전한 주거양식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전원주택 등등이 있고 저마다 여건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층간소음을 피해의식과 다툼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생활문화를 통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7) 석탄 화력발전소 폐기해야 하나

● 찬성 측 입장

국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2016년 기상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추적한 결과 서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율이 전체 발생량 중 14%라고 언급했다. NASA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협력한 한반도 미세먼지 분포 원인 연구에서도 서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없다. 영국의 전력시장 애널리스트인 맷 그레이는 2019년 3월 한국의 화력발전 경제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금처럼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한다면 2040년까지 무려 1060억달러, 한화로 약 12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원은 환경 친화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은 재생 에너지원 기술 발달로 2025년 즈음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기존 화력발전보다 절반 이상 값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기간 동안 화력발전 비용은 오히려 상승한다고 한다.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은 환경오염을 낳을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는 옛 시대의 기술이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

● 반대 측 입장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라는 통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6년 4월 환경부가 내놓은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석탄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공기 중 미세먼지 비율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4%에 채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 청와대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한다. 노후된 발전소를 보강하고 석탄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분히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에너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화력발전소에 의존한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45%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선불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서는 안 된다. 대안도 없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한다면 에너지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당진이나 태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는 발전 규모가 6000메가와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우수한 발전소를 폐기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원의 6% 수준이다. 석탄화력발전량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라는 비율도 우리나라 전력 소모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LPG 가스 발전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 비용이 높아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기반으로 화력발전소를 보강하여 석탄화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8) 미세먼지의 재난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요즘 우리나라 현대인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체크하는 일이다. 현대인들에게 미세먼지는 방사능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광범위하고 아주 일상적인 골칫덩이가 되었다.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만 우리의 일상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재난이다. 중국의 베이징 같은 곳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는 공기로 인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또 최근에는 에어노마드족(Air-Nomad)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나쁜 공기를 피해서 좋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환경 난민들이 등장했다는 뜻이다.

● 미세먼지의 성분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을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안보일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PM10(Particulate Matter)이라고 한다. 이 정도 크기면 우리가 숨을 쉴 때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몸 곳곳에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 미세먼지 중에서 크기가 더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 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이 된다. 아무래도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훨씬 더 해롭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납, 질소, 일산화탄소와 같은 각종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1987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 미세먼지의 원인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크게 보자면 자동차 배출 가스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기 그리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나 심한 스모그 현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나 황사같은 자연 발생적인 것들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가 불어오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으로 뿜히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석탄을 사용하는 의존도가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겨울철이 되면 스모그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해를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가스, 온갖 화합물이 합쳐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계절은 역시 봄이다. 그 중에서도 2월이 가장 높게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달은 9월이고 평균적으로는 여름이 가장 농도가 낮다고 한다.

●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성인의 경우 하루에 평균 13000번 이상 호흡을 한다. 한 번 호흡을 할 때마다 미세먼지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숨 한번 쉴 때마다 걱정이 쌓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숨을 쉬면 코에서 먼지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작기 때문에 코를 통과해서 기관지나 폐포까지 침투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혈관을 타고 생식기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우리 몸에 쌓이는 미세먼지는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천식은 물론이고 폐와 같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과 2세에게까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폐를 손상시키며 심근 경색이나 협심증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장기간 노출이 되면 면역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9)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현상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6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를 늘리고 소득세를 줄이는 정책을 발의했다. 2017년에는 고용안정을 꾀하며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해 여기에 대한 찬반이 거세게 일었다. 100%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 사례라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축소, 복지 강화, 증세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들어서며 세계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부의 분배 측면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세계적인 자산가 사업가들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지원, 교육지원 등 보다 폭넓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재원을 창출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직까지는 실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편적 복지가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 코로나 사태에 의한 '원격교육'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년보다 줄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던 '학교생활 행복도' 역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6월 2일(수)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중3·고2 학생이다.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 수준에서 보통학력인 3수준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경우,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 2년째 원격수업...저소득·맞벌이 취약계층 교육격차 더 벌어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환경이나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맞벌이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학습결손 문제는 더 치명적이다. 교육열이 높은 강남 지역에선 학교 수업의 빈자리를 사교육이 대체하고 있다. 오전부터 학원에 모여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일대일 과외를 받는 학생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교육 취약계층은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로 부모의 소득 차이가 자녀세대의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케이(K)자 형'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이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커졌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원격수업은 가정·학교에 따라 인프라가 다르고, 학교·교사별로 질이 천차만별이라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124만 명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아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 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학령인구 감소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인구(이하 학령인구)는 2020년부터 7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대학으로 2017년 171만 5,000명을 기록한 고교 학령인구는 2018년 157만 4,000명, 2019년 145만 4,000명으로 해마다 10만 명 이상씩 줄어들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4) 문이과 통합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로 알려진 ‘문이과 통합’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2022학년 수능 선택과목을 놓고 주요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수학과 탐구에서 자연계열 선택과목을 지정, 사실상 고교에서부터 계열을 구분토록 했기 때문이다. 대입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한 중등교육의 현실상 대학들이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하면 고교에서는 앞서 계열을 구분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교육계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통합’이 아닌 ‘불분과’로 교육과정의 취지를 바라본다면 개정교육과정이 취지를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자연계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들이 선택과목을 지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문과·이과 구분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5) 교사 유튜브

“모자이크해주고 실명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네요” 한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 때문에 고민이라며 올린 글이다. 선생님이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이른바 ‘교사 유튜브’인데 걱정이 많다. 아이들이 온라인에 노출될 경우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 유튜브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모습, 학생들과의 일상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은 아니다.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 취미나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등)에 도달할 경우엔 검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교육 관련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이다 보니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거나 학습의 질이 낮아질까 걱정된다는 내용이다. 학생이라는 한 누리꾼은 “우리 반 선생님도 브이로그 하셨다.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와 친구들이 얘기하는 모습이 뒤에 찍혀 있어서 당황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한 애들만 찍는다고는 하지만 거절한 애들은 생활기록부랑 평판에 안 좋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6) 자사고 폐지

1974년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 과열 경쟁은 조금이나마 해소했지만 학교의 단순화, 획일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교육부는 1995년 교육 개혁안에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운영과 다양성 및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자사고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엘리트 교육’ 정책을 시행하며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고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자사고를 도입했는데 일부 학교의 경우 엘리트 교육을 넘어 ‘귀족 학교’로 변질해 공교육이 더 황폐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 다문화교육/한국어교육

다문화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4만7378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이상이 늘었다. 2012년 조사 시행 당시(4만6954명)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수원시 지동초의 경우에도 재학생의 4분의 1이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은 학기 초인 3~4월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낯선 환경과 쉽지 않은 언어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힘들다. 학교 적응은 물론 교과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중도입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입학한다. 이게 약점이 되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기 어려운 경우 등교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기 초에 잘 지도하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 이유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를 꾸준히 다니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어른들이 마련해줘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적이나 체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도 법적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년째 다문화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다.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대학교와 일선 초등학교들이 손잡고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 사니까 한국어를 배워라’는 식의 단순한 관점에서가 아니다. 어떤 배경을 가진 아이든,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과 생활지도 면에서 효과가 높아서다. 수원시의 지동초·세류초·남수원초·매산초·화홍초·수원초 등 6곳이 꾸준히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를 운영 중이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언어 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 무학년제 한국어 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다.

8) 특수학급/통합학급

“통합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장애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 탈북,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다.” 이숙향 이화여대 교수(특수교육)가 지난 6월 11일 (한겨레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 내내 강조한 말이다. 이 교수는 한국육영학교,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현재 교육부 통합교육 연구학교 컨설턴트로 위촉되어 통합교육 현장에서도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전문이다.

Q. 통합교육,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1971년 1개 학급으로 시작한 특수학급은 현재 1만1천여 개로 증가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72.1%가 일반 학교에 통합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2017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과제로 담으면서 ‘정다운학교’라는 이름의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재정 지원으로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큰 걸림돌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Q. 질적 제고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가 학교에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개별화 교육도 필요하다. 단기 사업이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어도 통합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통합교육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부분은 비장애학생들도 겪는 어려움이다. 포용 문화가 있는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좋은 학교다. 장애 학생에게 좋은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도 좋다.”

Q.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재정 지원이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 여부에 따라 통합교육 실행 여부가 결정되면 안 된다. 통합교육 연구학교의 진정한 성과는 연구학교 종료 이후에도 통합교육 기반과 포용하는 문화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다행히 교육부와 연구학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Q. 일반교사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겠다.

“통합학급 일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 대해선 교사마다 생각이 다르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줄 수도 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학생이 우리 반 아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대학 교원 양성과정에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직 필수과목으로 ‘특수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지만, 통합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다. 실습도 예비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따로 진행하는데, 같은 학교에서 함께 협력교수 지도안을 만들고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 분명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Q. 대입 중심의 중등교육 시스템에서 통합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

“통합교육은 학업성취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이슈가 아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또래 간 문화를 공유하고, 공통의 경험을 갖게 하는 데 가치를 둔다. 전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통합교육을 경험한 학부모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통합교육의 경험이 언제가 가장 좋았는지 물었더니 학교급별 일관성이 없더라.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했다. 학생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선생님과 학교 분위기가 중요하다.”

Q. 통합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장애학생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 자립해야 한다.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통합의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 통합교육을 할 때 교사 한 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9) 채식 급식

전국에서 채식 선택 급식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채식 선택 급식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 학생들의 채식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육류에 편중된 식단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 초·중·고교 132곳에서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주 1회 또는 월 2회 ‘고기 없는 식단’을 짠다. 2011년부터 채식의 날 시범학교 20곳으로 출발해 2017년에는 105곳(유치원 포함)까지 늘었다. 2018년부터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채식의 날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013년엔 채식의 날 시범학교의 채식 식단에서 100가지 채식 요리법을 선별해 <채식, 맛이 보인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2곳씩 모두 6개 선도학교를 선정해 채식 선택 급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인천지역 급식 학교(527곳)의 5분의 1가량인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채식 급식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채식 선택 급식 도입의 연관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앞서 2020년 8월부터는 영양교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급식정책 추진단을 꾸리고 채식급식 운영 예시(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채식이 학생들에게 친숙해지려면 교

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가비채 광주자연과학고 영양사는 “광주북성중 재직 때 학생 159명 중 70% 이상이 채식에 반대하다가 채식 관련 전문 강의를 듣고 난 뒤 83%가 찬성했던 것을 보고 채식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교 세 곳을 대상으로 채식 선택 급식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채식을 하게 되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채식을 확장하는 학교에 예산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5 문화 및 역사

1)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거 법제화를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다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했다.

● 찬성 측 입장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공공연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구제 수단도 마땅치 않다며 새롭게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성별, 학력, 출신 국가, 고용 형태 등 차별 금지 사유 23개를 거론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근거로 고용, 교육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금지한다. 민주당도 지난달 차별 금지 사유 21개를 담은, 비슷한 내용의 평등법을 발의했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등은 지난달 29일 “어떻게 그 어떤 반대나 비판 목소리도 혐오 발언과 혐오 선동으로 매도돼 처벌하고 특정 소수자의 기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려는가?”라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했다. 정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일단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이다. 두 안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장 의원 대표발의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권위 시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반대 측 입장

23개 차별 금지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분분한 것은 ‘성적지향(性的志向)’이다. 이 법안에 등장하는 성(性) 관련 차별 금지 사유는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3가지다. 성별은 남성·여성 등이고, 성별 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을 뜻한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보수 성향의 단체나 기독교 단체 등에서 특히 반발한다. 한국교회총연합회

는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만, 동성애를 정상화 혹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성소수자 단체들은 “동성애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며 일상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만큼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맞선다.

‘학력’도 뜨거운 감자다. 교육계와 재계(財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서 ‘학력’을 삭제해달라는 공식 의견을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학력이나 고용 형태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사기업의 자율 경영을 제약한다”며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합리적 차이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역차별을 낳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측은 “학력은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박한다.

2) Black Lives Matter[조지 플로이드 사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으로,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범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흑인 인권 운동이다. 최근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확산된 시위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계속돼 온 소수인종에 대한 사법적 차별이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전부터 경찰의 흑인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에도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 '공무원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공무원 면책권은 1967년 미 연방대법원이 선의로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 흑백 간 불평등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도 시위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높은데, 실제로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 주민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대응 역시 성난 민심을 자극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 주도 세력을 극좌파인 '안티파(Antifa)'로 규정하고 이들을 즉각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확산시킨 바 있다.

● 경찰관의 과잉 대응

한편, 경찰관의 과잉 행동은 왜 일어났을까?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을 통해 또 하나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의 해석’은 흑인 여성 샌드라 블랜드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블랜드의 이야기는 그녀의 차선 위반, 경찰관의 과잉 진압, 유치장 구금을 거쳐 결국 그녀의 자살로 요약된다. 글래드웰은 ‘왜 경찰관과 블랜드가 결국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그중 주목할 부분은 경찰관이 과잉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관은 그날도 별일 아닌 것들로 남들보다 훨씬 많은 딱지를 댔다. 그러다가 차선 변경에서 더 일찍 깜빡이를 켜지 않은 블랜드를 단속했고, 나중에는 강력범에게 하듯 전기 충을 꺼내 하차를 요구하고 뒤로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넣었다. 가벼운 범규 위반치고는 상당한 과잉 진압임에 틀림없다. 책은 마지막에서 미국 경찰 조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석한다. 경찰 조직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특정 구역을 지나칠 정도로 순찰하고 단속하면 범죄율을 극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윽고 전국에 이 지침을 알렸다. 범죄율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지역에는 어울리지 않는 지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블랜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도,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도 결국 자신이 근무하던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침을 충분히 따랐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들의 끔찍한 과잉 진압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시하는 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경찰이 범죄를 소탕하는 것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기지만 본질적이지는 않다. 범죄 소탕도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지만, 시민을 범인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조직과 리더의 책임이다.

3) 미군정은 점령군? 대권 유력주자의 ‘역사 논쟁’

여야의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서 역사 논쟁이 가열됐다. 시작은 지난 1일 이 지사의 발언이었다. 이 지사는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 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과 유엔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나”면서 “셀프 역사 왜곡”이라고 이 지사를 맹비난했다. 그러자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미군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고, 윤 전 총장님께서 숭상하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점령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미군 포고령에 “조선 영토 점령”, “점령 목적·조건” 등 명시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1945년 9월7일 미군정청의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영어 원문을 살펴보면, 미군은 자신을 ‘점령군’으로 일컬었다. 당시 미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명의의 포고령엔 총 4차례에 걸쳐 미군과 관련해 ‘점령하다’(occupy), ‘점령’(occupation) 또는 ‘점령군’(occupying forces)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이 포고령 제1호는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점령에 관한 조건”을 열거하면서, 제3조에서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또는 공공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하게 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고령에는 조선 인민이 해방의 주체이며, 조선의 독립이 점령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대목도 있다. 포고령은 “점령의 목적은 (일본이 조인한)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조선 인민의)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면서,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한다”고 밝혔다.

●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 ‘미 점령’ 표현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미 점령군’ 혹은 ‘미군의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기록관과 이승만 기념관이 보관한 이 전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건국 기념사를 보면 ‘미 점령군’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해방 뒤 주둔한 미군정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국 기념사에서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 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점령군 사령장관이요 인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구임을 다시금 인정하는바”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미군 점령’ 표현에는 ‘우리 영토를 차지한 외국 군대’라는 현대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소 다르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25일 6·25 제50주년 기념사에서 ‘미군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분단의 원인은 일제 지배에 있었다”며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가 일제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점령했기 때문이었다”고 연설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분단의 원인이었다면서도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국 모두의 한반도 ‘점령’이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6·25의 비극도 그 뿌리는 앞서 말한 19세기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자세에 있었다”고 말해, 국민적 단합과 근대화라는 역사의 흐름을 외면해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됐고 분단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시각을 내비쳤다.

4) BTS 세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지난 5월 인도, 영국 변이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지 방역망이 뚫렸다. 인도와 인접한 대만의 모든 축각이 방역과 백신에 쏠리면서 한동안 한류 소식은 잠잠했는데, 맥도날드의 BTS 세트 출시 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만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의 맥도날드에는 BTS 세트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파 탓에 일부 매장이 폐쇄되는 등, 웃지 못할 헤프닝도 겪었다. 대만에서는 최근 출시된 맥도날드 BTS 메뉴를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한 유투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질타한 사실이 뉴스화됐다. 이 뉴스를 접한 통신원은 ‘역시 BTS의 파급력은 다르다’고 느끼면서도 한 편으론, 한 달여간 모든 일상생활이 정부의 규제 속에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감염의 위협 속에서 강행되고 있는 BTS 세트 구매 행렬은 여러 생각을 남긴다. 이 세트의 포장 봉투, 종이컵, 상자 등이 인터넷상에서 재판매되고 있다고 하니 BTS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든 특별함, 새로운 신기루가 지탄받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세도 중요하게 느껴진다. BTS가 ‘한류 스타’라는 수식어 없이 그저 BTS 존재만으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음악적인 재능도 재능이지만, 현실적 문제의식을 대중과 공유하고, 연대하는 문화를 만드는 독특한 스타일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BTS는 그들의 주된 무대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열창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들을 전 세계인에게 호소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었다. 또한 대중음악뿐 아니라 기타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그 시너지 효과를 키워왔다. BTS의 팬덤을 뜻하는 아미(A.R.M.Y) 역시 BTS가 고유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BTS는 역경 속에서 찾아낸 희망을 전 세계 아미에게 호소했다. 단점이나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과 그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도 적용되었고, 아미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낳았다. BTS로 뚝뚝 뭉친 그들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오히려 새로운 문화로 창출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의 귀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맥도날드 세트 사건을 접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미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동안 BTS가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시대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춤과 노래로 자유롭게 표현했고, 팬들과 함께 연대 의식을 가지고 소통하고 공유하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무분별한 비판은 지양되어야 하나 재사용한 BTS 세트의 포장지, 종이컵 등이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한 한 유투버를 향해 비판한 일부 아미의 모습 속에서 그동안 BTS가 주장했던 소통과 공유는 어디에 있을까란 물음을 갖게 한다. 대

만은 현재 방역 체계가 뚫렸고, 백신 접종 역시 이제 막 시작되어 최소 한 달여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그 속에서 BTS 세트의 출시는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소식이 었다. 다만, BTS가 현재의 BTS가 되기까지 그 배경에는 그들의 무대에 더불어 연대 의식과 소통이 있었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앞서 언급했듯 BTS의 영향력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미의 영향력 역시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이 자유로운 표현을 망설이게 만든다면, 그동안 BTS와 아미가 새롭게 창출한 시너지와 독특함이 어느 순간 오명을 얻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타인의 시선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5) 배우 윤여정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배우 윤여정이 25일 밤(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아시아계이자 여성이며 74세 고령인 그녀가 저예산영화로 이 상을 받은 것은 도도한 아카데미 장벽을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 102년 만에 처음이다. 아시아계를 통틀어서도 64년 만이다.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은 쾌거다. 한국 영화계에는 물론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친 국민에게도 큰 위로이자 경사가 아닐 수 없다.

◎ 오스카 수상의 의미

윤여정의 수상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우선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아시아인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껴안고 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오스카는 거대 자본이 들어간 대작 위주의 작품, 백인 연기자 중심의 수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를 중시하는 칸 영화제 등에 비해 편협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수상으로 이런 편견을 깬 것이다. 중국계 여성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작품상 감독상 등을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윤여정의 전형적이지 않은 연기를 오스카가 알아봤다는 점이다. ‘미나리’에서 윤여정은 미국으로 이주한 딸 부부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건너간 할머니 역을 맡았다. 보편적이지만 결코 전형적이지 않은 연기였다. 손주들에게 쿠키를 구워주는 대신 바닥에 꾸그리고 앉아 화투를 가르치고 고약한 말을 서슴없이 던지는 식이다. 윤여정은 같은 연배 여배우들과는 달리 데뷔 초반부터 과격적인 연기에 도전했다. “평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 다르게 하는 것”이라는 최근 인터뷰가 이를 보여준다. 결혼, 도미, 이혼의 공백기를 겪은 그는 “나는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남들은 극찬하더라”며 생존형 배우라고 말했다.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고, 뻔하지 않은 연기를 펼쳐왔다. 그가 트레일러에서 숙식도 해야 하는 저예산 영화를 찍으러 미국까지 직접 갔다는 자체가 이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이번 수상은 한국 감성이 세계에서 통하며 자본력이 없어도 작품과 연기가 호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6) 대체공휴일 확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

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찬성 측 입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식과 여가, 자기계발 시간을 더 갖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꿈이다. 한국은 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열심히 많이, 밤·휴일도 없이 일한 덕에 ‘한강의 기적’도 이뤄냈지만, 언제까지 장시간 근로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할 수도 없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는 것은 국제통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장별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줄여나가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휴가권 확대, 근로자 휴식시간 확충 등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기업과 사업주, 민간에만 맡겨두면 장시간 근로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장기불황에 코로나 쇼크까지 겹친 ‘복합불황’ 상태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때 하루에 4조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지출 증가액이 2조1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3만6000 명 등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올 하반기 나흘의 대체공휴일 증가에 따르는 경제 효과는 16조 원을 넘어선다. 2020년 광복 75주년 때 임시공휴일(토요일인 8월 15일)을 대체하는 8월 17일(월요일)을 지정했을 당시 분석한 경제효과가 그렇게 나왔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쉬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효과는 숙박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등에서 두드러졌다. 모두 코로나 충격이 컸던 업종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진국이 경기 불황 때 공휴일 확대를 하나의 돌파구로 삼는다. 모두 내수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노력이다. 관광 외식 쇼핑 오락 등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것 외에 무형의 간접적 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휴식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

● 반대 측 입장

유급 공휴일의 인위적 확대 문제는 반드시 생산성과 결부시켜서 봐야 한다. 한국 노동시간이 선진국 기준으로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런가. 아직은 노동 시간당 평균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 전체로 볼 때 전문화, 분업화, 정보기술(IT)·인공지능(AI)화 등 고도화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근로시간을 확 줄일 여건이 못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일하는 시간이 길어 생산과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한다면 본말의 전도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생산성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위적으로 무리해가며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생산성을 내실 있게 높여나가면 근로시간은 자연히 줄어든다. 이게 선진국이 앞서간 길이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겠다는 근거처럼 함께 내놓은 여론조사도 적절치 못하다. 전국 1000여 명에게 물었더니 72.5%가 찬성했다는 것인데, 응답자 구성부터 봐야 한다. 고용주(사장)보다 근로자(직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유급휴일 확대에 마다할 월급쟁이가 얼마나 되겠나. 굳이 조사하려면 급여를 주는 쪽에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학생들 응답은 또 어떠하겠나. 이토록 부실한 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63%, 제3자 격인 전업주부는 66%가 반대한 것을 봐야 한다. 국민경제와 산업현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사회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연스럽고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치열한 근로 뒤의 ‘휴식’과 일은 하지 않은 채 ‘노는 것’ 정도는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누가 뭐래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선심책이다. 불과 아홉 달 남은 대통령선거와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 표가 많을지를 계산한 선거 꿈수로 볼 수밖에 없다.

7)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국공립 문화기관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세가 심각해지자 기존 운영하던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SNS)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전시 소개 영상과 작가 인터뷰, 실시간 생중계, 공연 현장 영상 등을 공개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영상은 시공간에 제약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 이용자의 눈길을 끌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31일 온라인 공연·전시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하고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정보를 제공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 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 교육과 전시, 공연, 도서 콘텐츠로 연결됐다.

● 비대면(온라인) 문화콘텐츠의 한계와 질적 향상 방안

평소에 전시, 공연, 음악 등에 관심이 있는 마니아가 아니고는 국공립 문화기관의 온라인 콘텐츠에 손이 가지 않다는 의견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수의 관람객과 전문가들은 “온라인 콘텐츠는 현장의 생동감과 몰입도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콘텐츠가 현장을 대체·보완할 통로로는 적격하나 관객을 만족시킬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이야기한다.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시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병행하는 방식이되, 온라인을 오프라인의 보완재로서가 아니라 온라인 고유의 속성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 배급을 위해 홍보의 역할을 매우 커진다는 점에서 기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등 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온라인 콘텐츠는 통합적이어야 한다. 전시 기획자, 영상 관련 기획자, 홍보 전문가, 기술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단일한 다큐멘터리형 콘텐츠로 새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없다”며 “콘텐츠는 재미있어야 하고, 상호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 이용자에 대한 연구와 이들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형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공립 문화기관의 향후 인력 조직과 예산 등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관람객이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는지, 이용자들이 어떤 성격의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공립 문화기관이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 행정 지시가 떨어져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적 제약이 있지만, 이제는 문화예술기관이 새로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 박물관, 미술관이 문을 열어도 사회적 분위기상 외출이 꺼려지면 관람객 수는 줄기 마련”이라며 “시대는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는데 국공립미술관의 온라인 콘텐츠는 여전히 다큐멘터리 형태다. 그러니 어느 이용자가 만족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큰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8) 유네스코 경고장 받은 일(日) 군함도 역사 왜곡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부끄러운 과거를 부인하는 주장만 늘어놓자 국제사회가 제동을 걸고 시정을 촉구한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감추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유네스코 결정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까지 위반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일본의 뻔뻔한 행태를 거듭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제사회 경고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다. 일본 외무성은 열흘 전 결정문

초안이 나오자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주장했고, 결정문이 정식 채택된 뒤에도 거듭 같은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일본은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 때만 해도 한국인 등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며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 성공 이후 태도를 확 바꿨다. 지난해 문을 연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메이지시대 산업화의 성과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운 채 강제 징용도, 가혹한 노동도, 조선인 차별도 없었다는 거짓 증언만 포함시켰다. 등재 당시의 약속은 한낱 속임수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번 유네스코 결정에 따라 일본은 내년 말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볼 때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놓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부끄러운 과거 역사도 거짓과 억지, 거기에 국제적 영향력까지 보태면 지울 수 있다고 믿는 듯한 일본이다. 일본이 그런 헛된 믿음과 착각에서 벗어나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도록 일깨우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할 책무다.

9)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기기 사용도 한층 가속화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속 디지털 격차는 노인 건강관리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일일환자수부터 유행지역, 예방접종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간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이 정보 획득에선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문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격차는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은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노인 디지털 소외에 관한 체계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며 “우리 사회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스스로 위축되거나 기존의 우울·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동우 교수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과 이해가 느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증상이지만 고령층은 인지저하를 경험했을 때 자괴감과 당황스러움, 때로는 분노까지 느낀다”며 “이것이 계속되면 자존감 하락은 물론 우울·고립감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인 특성 고려한 교육방안 마련 필요

정부는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디지털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노인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팀의 ‘디지털헬스기기의 통합적 고령자 기술수용도 모델연구(2020)’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디지털 헬스기기 사용의향은 기기가 유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본인 능력의 믿음이 높을수록, 기기에 대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높았다. 김영선 교수는 “같은 고령층이라도 신체·인지기능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텍스트기반의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AI스피커를 통한 음성교육,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교육, 홀로그램(실물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와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학습과정에서 노인의 감정을 고려해 반응해야 한다. 강동우 교수는 “노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말로 공감해주는 것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여 학습능력 향상에도 훨씬 도움 된다”고 말했다.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

기획 및 제작

김춘형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정병준 강원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관
강승구 강원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사
조원교 강원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사
홍정은 강원진학지원센터 자료개발팀장

집필 및 편집

강원진학지원센터 자료개발팀
이윤철 경포고등학교 교사
김기욱 하장고등학교 교사
박기춘 함백고등학교 교사
윤주희 함백고등학교 교사
차재민 고성고등학교 교사

인쇄 일

2021. 8.

발행 일

2021. 8.

발행 기관

강원도교육청
(2422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전화 033) 258-5425
홈페이지 www.gwe.go.kr